

강원대학교 산학협력 정책 보고서

KROSS



CONTENTS

1	발간사	1
2	산학협력단 주요 연혁	2
3	2025년 정부 정책 방향	4
4	교육부 RISE	9
5	강원대학교 RISE 추진 계획	11
6	2024년 산학협력단 성과	13
7	참고문헌	16

발간사





따스하게 불어오는 봄바람이 **2025년**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립니다.

‘새로운 시작’, ‘성장과 발전’이라는 의미를 지닌 을사년의 4월은 참으로 뜻깊은 달입니다.

이처럼 변화의 기운이 가득한 시점에서,

우리는 산학협력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탐색하고자

강원대학교 산학협력 정책 보고서 **‘KROSS’**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 **KROSS** = ‘Kangwon + Cross’의 합성어로, 산학협력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와 다양한 주체들 간의 교차 협업을 통한 공동 문제극복 의미

산학협력은 대학과 산업의 연결을 넘어,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학협력으로의 개념 확장과 더불어 그 역할은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학협력은 기존의 학문적 연구와 산업 기술의 교류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가치 창출, 인재 양성,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등 핵심적인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강원대학교는 **강원지역 협력을 선도하는 대학**으로서,

지학협력의 성장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본 보고서는 우리 대학의 지학협력 성과를 조명하고,

지학협력의 최신 동향과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정책들을 분석하는 등

지학협력의 발전을 위한 정보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지학협력 활동을 종합적으로 돌아보고,

지학협력의 가치와 가능성을 더욱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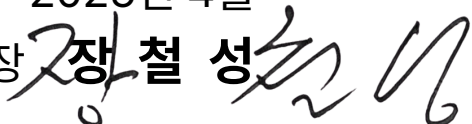
이 리포트가 앞으로 지학협력 정책을 활용하고,

지학협력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본 리포트 발간에 힘써주신 직원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독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4월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장철성** 

산학협력단 주요 연혁



2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주요 연혁 ^{#1/2}

2004		(2004.01.10.) 산학협력단 설립 (2004.07.01.)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NURI) 사업 선정 (2004.10.04.) 학교기업 설립(BR미디어프로덕션)
2005		(2005.07.01.) 대학 기술공급플랫폼 구축사업 선정
2006		(2006.04.26.) 2단계 BK21 사업 지원 선정(대형1, 소형9) (2006.05.18.) 강원대학교 기술이전센터 설치 (2006.07.01.) 대학 선도 TLO 지원사업 선정 (2006.09.14.)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지정(제29호 고시 제2006-26호)
2007		(2007.07.01.) 지역혁신센터(RIC) 사업 선정 (2007.11.01.) 인문한국지원사업(HK인문치료사업단) 선정
2008		(2008.07.31.) 창업보육센터 확장 사업 선정
2009		(2009.01.28.) 2단계 BK21사업 신규 사업팀 선정 (2009.04.20.) 산학협력단 조직 개편(산학연구기획과, 산학연구지원과 설치) (2009.09.01.) 산학협력단 지점 설립(강원대학교 창업보육센터) 기초연구실육성(BRL)사업 선정
2011		(2011.02.17.) 2011년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 선정
2012		(2012.03.01.)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RIS) 선정 (2012.04.01.)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육성사업 선정
2013		(2013.01.01.)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 선정 (2013.09.01.) BK21플러스사업 선정(사업팀5, 사업단3)
2014		(2014.04.01.) 산학협력단 조직개편(R&D전략부 신설) (2014.07.29.) 강원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설립
2015		(2015.05.13.)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지원(BRIDGE) 사업 선정
2016		(2016.04.12.) BK21플러스사업 추가 선정(사업팀9, 사업단3) (2016.07.01.) 대학기술경영촉진(TMC) 사업 선정

2017		(2017.03.14.) 산학협력단 지점 명칭 변경(삼척캠퍼스분단→삼척산학협력단) (2017.03.29.)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선정 (2017.08.31.)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SSK) 대형연구센터 선정
2018		(2018.04.05.)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BRIDGE+) 사업 선정 (2018.04.11.)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사업 선정 (2018.11.14.) KNU 스타트업 큐브(1단계) 개소
2019		(2019.04.16.) 대학기술경영촉진사업(TMC) 선정 (2019.08.01.) KNU 스타트업 큐브(2단계) 개소 (2019.08.28.)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 선정
2020		(2020.07.01.) 지역혁신 선도 연구센터(RLRC) 선정
2021		(2021.01.11.) 강원대학교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2021.03.05.) 기업연계 청년기술전문인력 육성사업 선정 (2021.12.17.) 12, 13대 산학협력단장 취임(장철성 교수)
2022		(2022.02.14.) 창업중심대학 운영사업 선정 (2022.03.17.) 캠퍼스 혁신파크 산학연혁신허브 기공식 (2022.04.12.) 대학기술경영촉진(TMC) 사업 선정 (2022.04.18.)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선정 (2022.04.27.)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기술혁신 선도형) 선정 (2022.06.09.) 강원 춘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2022.07.13.) 지역산업연계 대학 Open-Lab 육성 지원사업 선정 (2022.07.25.) 강원대학교 기술지주회사 한국 벤처투자 출자사업 지역엔젤징검다리펀드 선정
2023		(2023.02.01.) K-디지털 플랫폼 사업 선정 (2023.06.30.)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BRIDGE 3.0) 사업 선정 (2023.07.01.)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사업 선정
2024		(2024.03.14.) 2024년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선정 (2024.05.30.) 2024년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 선정 (2024.06.26.) 강원대학교 기술지주회사 한국 벤처투자 출자사업 대학창업펀드2 유형 선정 (2024.07.17.) 중소벤처기업부 팀스(TIPS) 운영사 선정

2025년 정부 정책 방향





■ '25년 주요 연구개발 예산은 24.8조원으로 역대 최대규모

과기정통부는 2025년도 국가 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발표('24.6.26.)하며, 주요 R&D 예산이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24.8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 주요 R&D 연도별 예산 규모: '23년-24.7조원, '24년-21.9조원, '25년-24.8조원

주요 투자 분야는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양자기술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집중되며, AI 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기술 분야에 전략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다. 또한, 고위험-고보상형 R&D를 통한 혁신·도전형 연구에도 약 1조원을 투자하며, 기초연구에는 역대 최대인 2.94조원이 투자되어, 연구자의 도약을 지원하고 새로운 이론 연구도 촉진된다.

- ① 인공지능 정부R&D 1조원 시대 개막, 3대 게임체인저 기술(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투자 확대
- ② 혁신·도전형R&D 1조원, 국가R&D 전반에 선도·도전의 DNA 이식
- ③ 기초연구 전년 대비 11.6% 증액한 2.94조원 투자, 역대 최대
- ④ 초격차 첨단기술 2.4조원 투자
- ⑤ 우주 경제 실현과 미래 에너지 수요 대응에 3.2조원 투자
- ⑥ 혁신이 선순환하는 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 ⑦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과학기술에도 투자 확대

2025년 국가 연구개발 예산 대폭 증가와 선도형 R&D 체제로의 전환이 강조됨에 따라, 대학들의 연구개발 전략을 재정립이 요구된다.

특히, 강원대학교는 강원자치도 주력사업인 바이오 분야의 디지털 바이오 육성 기반을 공고히하고 바이오 관련 제조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더욱 강화하여, 글로벌 가치사슬 내 대체 불가능한 기술을 선점할 수 있는 전략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기초연구에 역대 최대 예산이 투자(전년 대비 약 11.6% 증액)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 대학은 우수 연구자들의 연구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감 고취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새로운 연구와 실험적 접근을 기반으로 연구성과를 도출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 '25년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사업 본격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25.2.11.)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사업('25~'33년)은 이공계 대학원생의 연구 환경 안정화를 위해 '한국형 스타이펜드'를 도입하는 사업이다. 기존 산학협력단을 통한 학생지원금 업무체계를 통합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경제적 안전망 확충과 대학원생의 처우를 개선을 목표로 한다. '25년 편성예산은 예산 600억원에 달하며, 석사 80만 원, 박사 110만 원의 최소지급액을 보장한다.

정부와 대학이 학생인건비 부담을 분담하는 구조로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점진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약 30개 대학, 5만여명이 지원 대상이며 참여 대학 또한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사업 운영 성과가 우수한 대학을 중심으로 기준금액 상향을 우선 검토하고, 정부 연구개발사업 및 타 이공계 지원 사업과 연계해 대학원생 처우 개선과 연구 몰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기초연구에 역대 최대 규모인 2.94조 원을 투입하며, 사업의 일환으로 본 사업을 지원한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사업은 대학 연구원에게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며, 연구비 통합 관리로 인건비와 지원금의 변동성이 줄어 연구 환경이 안정될 전망이다. 또한, 대학과 정부가 공동 부담하는 구조로 변화를 통해 산학협력단의 효율적 운영과 학생연구자 처우 개선이 가능해진다. 이는 대학의 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며,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운영체제로 자리매김한다면 대학의 연구지원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모두를 위한 맞춤형교육으로 국민의 걱정은 덜고, 성장의 기회는 늘린다.

교육부는 2025년 「기회의 사다리가 되는 공정한 교육 실현」의 비전과 「모두를 위한 맞춤형교육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목표로 국가책임 교육·돌봄, 교육 현장의 변화, 지방과 국가의 동반 도약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25.1.10. 발표)한다.

특히, 지역 격차 해소와 청년 성장 지원을 위해 교육발전특구를 조성하고, RISE 체계를 전국 17개 시도에서 본격 시행해 국비 2조 원과 지방비를 투입하여 지역·대학 동반 혁신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재양성-취·창업-정주 생태계'를 구축하고, 타 부처 대학 관련 정책과 연계해 지역 교육력 향상 및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또한, 대학·중소기업이 협력해 교육과정 설계부터 졸업생 채용까지 연계하는 '인재 파이프라인(Talent Pipeline)' 모델을 운영하고, RISE 체계를 통해 지역별 우수 모델을 확산해 산업 맞춤형 지역 인재를 양성할 예정이다. * RISE 체계 관련 챕터 4 참고

아울러, 유망 분야 우수 인재 배출을 위해 의대교육지원관 설치·운영, 대학원생·박사후연구원 연구장려금 확대, 대학연구혁신 프로젝트 추진,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지·산·학 협력 강화, 전공 자율선택제 도입 등 대학 교육과 연구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맞춤형 교육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교육이 기회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생활 안정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정책은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대학의 동반 성장을 유도하며, RISE 체계 전국 시행과 인재 파이프라인 운영을 통해 지역 산업과 연계된 실질적 인재 양성 및 정주 생태계 구축 등 다양한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대학이 지역 경제 발전의 중심이 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고, 첨단산업·의료 등 전략 분야 인재 양성의 가능성 고취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대학 자율성 저하와 산업 편향성 위험도 내포할 수 있으므로 지역·대학·산업 간 지속적 협력과 지원이 수반되어야 정책적인 성공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2025년 산업부 연구개발(R&D)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연구자 정산부담 완화, R&D 기획 절차 간소화 등 산업기술 연구개발(R&D) 규정 개정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자의 행정부담 완화와 개방·혁신에 부합하는 R&D 추진을 위해 3개 규정(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연구자율성 촉진 특별요령)의 23건을 개정·고시하고 올해부터 적용('25.1.2.)했다. 이번 개정 규정은 대학, 연구소, 기업 등의 의견을 반영하고 기술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으로 연구자의 R&D 수행 지원을 위해 신뢰성 인정 기관의 자체정산 확대, 100만원 이하 대학 연구재료비 증빙 면제, 반복·공통 제출자료 간소화, 법인·개인카드 사용 인정(불가피한 경우), 학생연구원의 연구참여 자율성 확대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개방·혁신을 촉진하고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기획 시 사전분석 절차 간소화, 동시 수행 과제 제한 완화(표준화 R&D·국제협력과제 장려), 해외기관 연구비 수령 편의성 강화, 육아 휴직 기간 중 퇴직급여충당금 지원 신설, 기술료 성실 납부기업 인센티브 부여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이번 개정이 연구현장의 공통 애로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연구자가 더욱 자유롭고 유연하게 R&D를 수행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앞으로도 연구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산업부의 R&D 규정 개정은 연구자의 행정부담 완화와 연구 자율성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대학 연구자의 연구재료비 증빙 면제, 자체정산 확대, 연구참여 자율성 강화는 연구 환경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동시 수행 과제 제한 완화와 국제협력과제 장려는 대학이 글로벌 연구 역량을 확대할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도 연구비 운영의 투명성을 위한 세부 지침 마련과 지속적 의견 교환으로 연구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 “미래대응, 현장실용” 2025년도 농촌진흥청 예산안 편성, 농업의 스마트화·현안해결에 1조 1,052억원 투자

농촌진흥청은 2025년 예산안을 1조 1,052억 원으로 편성('24.9.2.)하고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R&D 분야 예산은 6,097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4.7%p 증가했으며, ①미래대응 성장동력 확충, ②식량자급률 향상, ③농축산물 생산·수급안정, ④농업·농촌 활력화 등 핵심과제 성과 창출을 위한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 ① 스마트농업 확산 및 디지털 육종 등 그린바이오기술 확충(1,380억 원)
- ② 식량자급률 향상 지원(1,067억 원)
- ③ 기후변화 대응 농축산물 생산 및 수급안정 지원(1,615억 원)
- ④ 고위험 병해충 방제 강화(696억 원)
- ⑤ 밭농업 기계화 등 현안 해결 및 농촌 활력화(679억 원)
- ⑥ K-농업기술 글로벌 확산(640억 원)

농촌진흥청의 중점 투자 분야인 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기술, 기후변화 대응 등의 핵심 분야 전반에 걸쳐 강원대학교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장기간 축적된 농업분야 우수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강원춘천 강소연구개발특구, 강원대학교 캠퍼스 혁신파크, 강원대학교 기술지주회사, 강원대학교 창업혁신원 등 사업화 지원 역량 및 인프라와 연계한 기술 실증·실용화·투자 지원·지역 확산의 전주기적 지원과 성과창출을 기대해 볼 만하다.

반면, R&D 사업 수주하기 위한 우리 대학의 만반의 준비가 수반되어야 것이다. 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 기후변화 대응 등 농촌진흥청의 핵심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연구 역량을 지속 확보하고, 연구 성과가 농업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되는 상용화 중심의 기술 개발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학은 기업 및 타 연구기관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연구 성과의 관련 기업 이전 또는 지역 내 사업화로 확산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교육부 RISE



■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대학과 지역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에 따른 교육과 경제의 총체적 위기에 공동으로 직면했고,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 고등교육과 사회, 경제, 문화 등 전반적 위기로 확대 될 것이 자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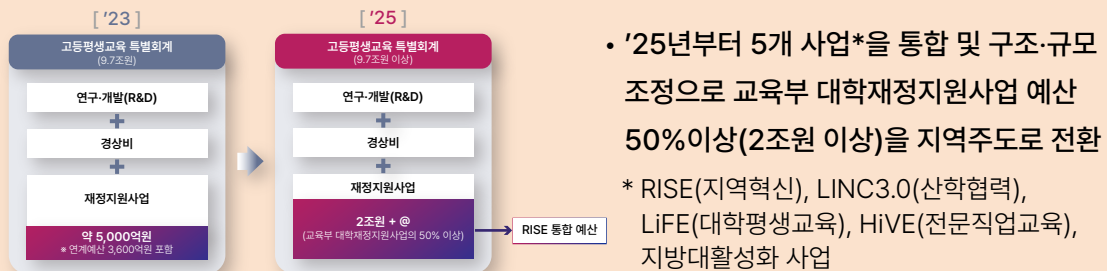
교육부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지역 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 강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했다. 대학·지역의 위기 극복과 동반성장을 위한 전략으로 2023년 3월 공모를 통해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북 7개 지역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시범지역으로 지정했고, 이를 기반으로 2025년 RISE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 대학입학 정원 약 50만명('25학년도 기준, 일반대+전문대) 유지 가정-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와 비교 시 2033년 인구절벽에 따른 급감기 도래와 2042년 30만명 이상 대학정원 미충원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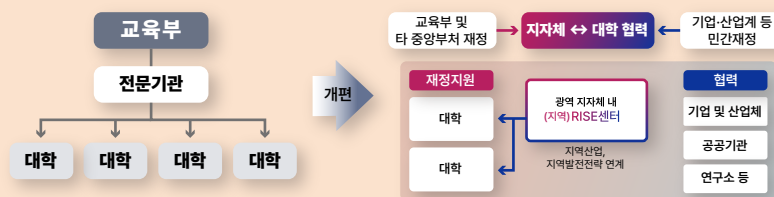
*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대학지원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하고 지역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으로 지역·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

Ⅰ 교육부 대학재정지원 사업 개편 방향 Ⅰ



Ⅰ 지역주도 대학 지원 Ⅰ



- 시·도 지정 전담기관(비영리 법인)에 지역주도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 지원, 지자체 주도 계획 수립 후 대학재정 지원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인재원의 강원RISE센터 전담기관 지정('25. 1.) 및 조직개편을 통해 인재육성과('24.7.)를 신설하고, '대학-지역이 함께만드는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를 비전으로, ①더 특별한 도약, ②더 특별한 변화, ③더 특별한 성장, ④더 특별한 배움, ⑤더 특별한 동행의 5대 프로젝트(13개 단위과제)를 중심으로 사업을 구성했다.

2025년도 사업비 규모는 약 957억원이며 도내 16개 대학지원을 통해 지역 혁신을 도모한다. 대학별 RISE 사업 계획은 정책 목적-과제-성과 연결의 논리 구조를 고려한 설계로 평가되며, 이러한 체계는 교육, 연구, 기술이전, 창업지원 등 대학의 역량을 지역 수요에 맞춰 구체화하는 시도이자, 지역혁신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접근으로 해석된다.

강원 RISE	프로젝트	단위과제	예산규모(내외)
	① 더 특별한 도약	①-① 지·산·학 기반 첨단전략산업 육성 ①-② 대학-기업 연계 시군 특화산업 육성	1,325억원 425억원
	② 더 특별한 변화	②-① 지역 취업-정주형 특성화 대학 육성 ②-② G-Lab기반 강원LRS공유대학 운영 ②-③ 지역협력기반 늘봄학교 체계 구축 ②-④ G-의료체계 고도화	750억원 350억원 25억원 -
	③ 더 특별한 성장	③-① 기술창업 허브 구축 ③-② 로컬창업 큐브 운영	275억원 225억원
	④ 더 특별한 배움	④-① 지·산·학 연계 평생교육 클러스터 조성 ④-② 지역수요 맞춤형 기능인력 양성 ④-③ 지역산업 선도 전문인재 양성	275억원 125억원 125억원
	⑤ 더 특별한 동행	⑤-① 지역위기대응 공동연구소 G-Lab 구축 ⑤-② 외국인 유학생 시티즌(CITIZEN) 프로젝트	350억원 200억원

강원대학교도 RISE TF('24.7.)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학연구부총장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RISE사업단(기획처, 기획지원처, 산학협력단 구성)을 구축('24.9.)하고 전략분야 선정과 컨소시엄 구성 등을 위한 체계적 조직을 구성·운영했다.



캠퍼스별 보유 인적·물적 역량의 분석과 인프라의 재구조화, 기존 사업수행 경험 등을 집대성한 강원대학교 RISE 계획을 수립('24.3.)했다.

강원대학교 RISE 추진 계획



5

강원대학교 RISE 추진 계획 #1/2



■ 강원대학교 RISE 추진 계획

비전	“지역과 함께 꾸는 하나의 꿈, 미래산업 글로벌 리더 강원대학교”	
목표	1 “하나된 강원” 지·산·학·연 혁신 생태계 실현을 위한 대학 중심의 협력체계 구축	2 “젊은 강원” 대학 교육 연구체계 고도화를 통한 지역 정주 개선
필요성 및 추진 전략	1 필요성 강원 지역 GRDP(2.4%/전국 13위) 및 산업 성장 동력(제조업 사업체 전국 8.9%) 미약 → 산업 고도화를 위한 첨단산업 기반 마련 전략 “미래 강원” 대학-기업 R&BD 기반 첨단-특화산업의 도약을 위한 혁신 생태계 구축	세부 내용 ·지·산·학·연 네트워크 기반의 G-Tech 브릿지 운영 ·첨단-특화산업 R&BD 글로벌 인프라 구축 및 기술사업화 ·지역기업 밀착형 R&D 지원체계 고도화 (IR, 투자유치, TIPs 등)
	2 필요성 청년층 순유출(-2,672명) 및 도내 산업의 기술 인력 미스매치(인력 규모 전국 0.8%) → 대학 교육-취업 연계를 통한 지역정주형 인재양성 전략 “행복한 인재” 첨단-특화산업 혁신을 주도할 정주형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체계 변화	세부 내용 ·첨단-특화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학사구조 유연화(R&BD 중심 특성화 융복합 교육과정 등) ·산학협력 중점 교육환경 개선 및 산업연계형 교육과정 운영 ·우수 인재 조기발굴·육성 체계 구축 및 교육발전특구 연계
	3 필요성 사업체 수 전국 2.5%, 창업기업 수 전국 3%, 창업기업 5년 생존율 70.6%(전국 13위) → 대학발 기술 창업 전주기 지원 시스템 필요 전략 “꿈꾸는 도전” 성장을 위한 기술창업 허브 구축 및 청년 정주를 개선	세부 내용 ·Lab to Start-up 교환·학생 중심 창업 허브대학 인프라 및 생태계 구축 ·강원대 우수한 대학기술창업지원모델 지역내 확산 및 정착
	4 필요성 평생학습 기관 수 전국 2.2%, 참여율 29.3%, 평생학습 성과 41.1%(전국 대비 저조) → 재직자 재교육 및 평생교육 체계적 운영 전략 “다시, 청춘” 강원 북부권역 평생교육 배움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세부 내용 ·강원 북부권역 평생교육을 위한 클러스터 구축(스마트캠퍼스 및 디지털교육 확산) ·생애주기 맞춤형 평생교육 관리시스템(LRS) 구축과 일자리 연계
	5 필요성 지역소멸위험지수 0.39(전국 3위), 외국인 유학생 3,000여명(전국 1.6%) 등 지역 소멸 위기 → 대학과 지역의 역량을 활용한 지역 난제 해결 전략 “하나된 동행” 대학 중심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동행	세부 내용 ·지역위기 대응형 G-Lab 구축과 정책 제안 및 법률 반영 ·지역연구 증가를 위한 글로벌 핵심 인재양성 지원

강원대학교는 “하나된 강원”, “젊은 강원”을 목표로 5대 전략(①미래 강원, ②행복한 인재, ③꿈꾸는 도전, ④다시, 청춘, ⑤하나된 동행)·7개 단위과제·12개 세부과제로 RISE 추진 계획을 구성하고 있다. 강원대학교의 발전계획과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계획 간 연계성·정합성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대학·지역의 특성화 전략과 유기적 융합을 설계하였으며, 강원특별자치도의 ‘첨단전략 산업육성’, ‘시·군특화 산업육성’, ‘지역 취업·정주형 특성화대학 육성’, ‘기술창업 허브구축’ 목표를 KNU RISE로 주도할 예정이다. KNU RISE는 도내 대학·지자체·기관과의 연계 체계에 있어서 특이점을 가지고 있다. 글로벌대학 목표에 따라 1도1국립대학이 될 강릉원주대학교와의 연계 뿐만아니라, 도내 대학·지자체(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양구군, 인제군, 철원군, 화천군, 홍천군)·혁신기관·기업과의 총체적 협업을 기반으로 한 세부과제를 구성하였다. 이는 사업 수주를 위한 단순 협업이 아닌 공동 기획→공동수행→성과 창출→확산으로 이어지는 운영 모델을 강조하며, 지역혁신의 지속 가능성을 고취시키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대학-지자체-산업체’의 3자 협력 구조를 강원특별자치도 내 제도적으로 내 재화·정착하는 데도 큰 의미가 있다.

강원대학교의 RISE는 단순한 재정지원사업·체계의 통합 또는 중장정부 권한의 지자체 이양이 아닌, 대학의 정체성 재정립과 지역위기 대응 방안의 공동 설계 및 극복하는 계기로 삼아 강원 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짊어질 동반자로서의 관계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고등교육의 공공성과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정책의 방향성과 맞닿아 있으며, 무엇보다 RISE 체계를 통해 강원대학교가 보유한 지·산·학 연계 역량이 지역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연구 중심 대학으로서의 R&D 수행 능력, 지역 기업과의 긴밀한 산학협력 경험, 창업 및 기술이전 인프라, 교육과정 혁신 등의 노력과 역량이 집적화되어 지역의 혁신 시스템을 견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해 봄직하다.



* 강원대학교 RISE의 목표 및 전략은 강원RISE의 5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면밀한 정합성 분석의 결과로 도출되었으며, 강원대학교 RISE의 2대 목표별 대학, 기업, 지자체 등 주요 주체의 역할과 연계성에 주목했다. 이를 통해 계획의 신뢰성과 미래 운영 안정성을 고취시켰다고 판단해 볼 수 있다.



지역과 함께 꾸는 하나의 꿈, 미래산업 글로벌 리더 강원대학교

2024년 산학협력단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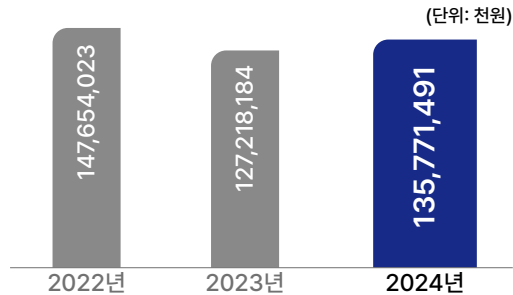
6

2024년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성과 #1/4

■ 2024년 주요 지표 현황

* 대학정보공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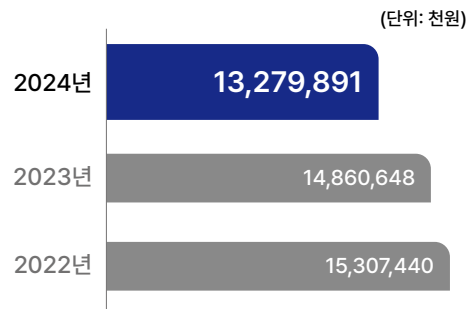
□ 과제 협약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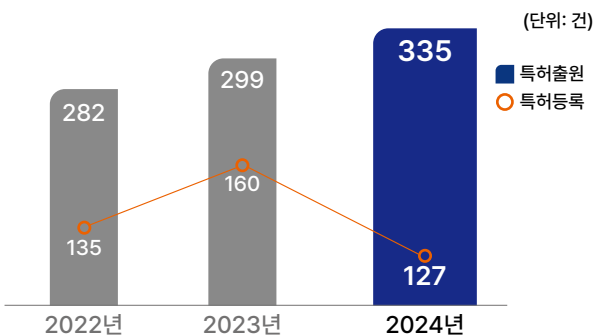
- '24년 강원대학교 연구비 협약 금액은 약 1,357억원으로 전년대비 6.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4년 정부 R&D예산이 약 9.4% 감소하였음에도, 6.72% 증가한 것은 강원대학교 연구경쟁력의 상대적 반증으로 해석할 수 있다.

□ 간접비 징수액

- '24년 간접비 징수액은 약 132억원으로 전년대비 10.6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R&D예산 규모 감축과 함께 강원대학교 간접비 고시 비율이 3.7%p 감소한 것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 '23년 26.95% → '24년 23.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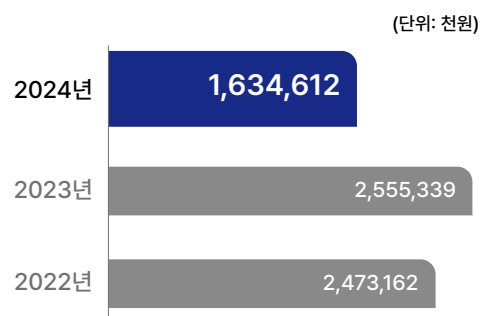
□ 특허 출원·등록 현황



- 특허출원 전년대비 12% 증가한 총 335건으로 그 중 해외 출원은 전년대비 80% 증가한 36건을 나타냈다
- 정량적 성과창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사업화 중심 자산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우수특허 확보 전략의 성공적 결과로 사료된다.

□ 기술이전 수입료

- '24년 기술이전 수입료는 약 16.3억원으로 전년대비 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기술이전 계약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계약 건수 대비 수입료(건당기술료) 증가 노력이 수반된다면 '25년 성장추세 회복을 기대해 볼만하다.



■ 지표별 세부 내역

□ 과제 협약

(당해연도 3월~ 차년도 2월 기준,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3년 대비 증감액(비율)
교육부	29,541,457	35,568,370	45,834,704	11,266,334 (+32.5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0,803,083	36,461,850	36,651,689	189,838 (+0.52%)
중소벤처기업부	11,185,712	9,572,445	8,940,138	-632,306 (-6.61%)
산업통상자원부	10,383,473	5,640,554	6,670,592	1,030,037 (+18.26%)
환경부	9,274,578	7,586,037	6,326,369	-1,259,667 (-16.61%)
농촌진흥청	6,518,330	3,977,050	3,976,450	-600 (-0.02%)
민간기업체	6,309,840	4,782,250	3,690,456	-1,091,793 (-22.83%)
보건복지부	2,437,444	4,321,792	3,608,474	-713,318 (-16.51%)
산림청	4,043,826	2,586,444	3,446,224	859,779 (+33.24%)
농림축산식품부	9,355,504	3,036,138	3,298,560	262,421 (+8.64%)
기타	17,800,774	14,685,251	13,327,831	-1,357,419 (-9.24%)
합 계	147,654,023	127,218,184	135,771,491	8,553,307 (+6.72%)

• (교육부 사업비 약 112.6억원 증가)

- 신규사업 수주 확대 및 전년대비 사업비 증액으로 약 129.1억원 증가
- 신규 학문후속세대 지원사업 21.1억원 증가
- 단, 신규과제를 지원하지 않는 일부 「이공학 개인연구 지원사업(지역대학우수과학자, 창의도전연구기반 등)」은 전년대비 22.4억원 감소

• (과기부 사업비 약 1.8억 증가)

- '24년부터 「기본연구지원사업」이 신규과제를 선정하지 않는 이유로 전년대비 24.5억원 감소하였으나, 「중견연구지원」, 「우수신진연구」 사업비 32.6억원 증가 등으로 '개인기초연구'는 전년대비 증가

• ('24년 정부R&D예산 9.4% 감소)

- 정부R&D예산 감액에 따라 신규사업 공모가 제한되었으며, 특히 기존 수행하는 연차과제의 연구비를 감액하여 재협약하는 등 전체적인 연간 연구비 감소 초래

6

2024년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성과 #3/4

■ 지표별 세부내역

□ 산학협력단 간접비 현황

(당해연도 3월~ 차년도 2월 기준,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3년 대비 증감액(비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512,186	5,745,642	4,955,149	-790,493 (-13.76%)
교육부	2,530,719	2,479,779	2,950,590	470,810 (+18.99%)
산업통상자원부	1,269,351	1,105,138	1,003,346	-101,792 (-9.21%)
환경부	1,019,276	861,996	837,017	-24,979 (-2.90%)
민간기업체	544,334	550,136	739,633	189,497 (+34.45%)
농촌진흥청	899,768	1,033,136	696,440	-336,695 (-32.59%)
농림축산식품부	967,889	849,994	409,184	-440,810 (-51.86%)
보건복지부	445,162	584,324	388,558	-195,766 (-33.50%)
산림청	647,290	469,449	278,484	-190,965 (-40.68%)
중소벤처기업부	528,917	271,806	128,800	-143,006 (-52.61%)
기타	942,542	909,242	892,687	-16,554 (-1.82%)
합 계	15,307,440	14,860,648	13,279,891	-1,580,756 (-10.64%)

• (교육부 간접비징수 약 4.7억 증가)

- '24년 신규과제 미선정으로 지역대학우수과학자지원사업 1.8억원, 창의도전연구기반 지원사업 1.7억원 감소하였으나, LAMP사업, 첨단분야혁신융합대학사업 및 신규 사업에서 8.8억원 이상 간접비 증가

• (과기부 간접비징수 약 7.9억 감소)

- 다수 사업에서 간접비 징수 감소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SW중심대학 3.2억원, Open-Lab육성지원 2.1억원, 강소연구개발특구 1.8억원 등으로 인해 간접비 감소 증폭

• (기관 간접비 고시비율의 감소)

- '24년 강원대학교 간접비 고시비율은 전년대비 3.7%p 감소한 직접비 대비 23.25%로 변동
- 전년도 26.95%에 비해 약 13.7% 감소한 수치로 간접비 징수액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재정지원사업의 간접비 비율은 약 3~5%로 산학협력단 재정 저하 영향
- 대학 연구지원 핵심부서인 산학협력단은 연구과제 수주를 통한 간접비 주요 재정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학 의견을 모아 재정지원사업의 간접비 비율을 고취시키려는 노력 필요

■ 지표별 세부내역

□ 특허 출원·등록

(연도별 1~12월 기준, 단위: 천원)

6T 분류	2022년		2023년		2024년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BT(생명공학)	157	67	170	87	165	68
IT(정보기술)	40	25	41	21	66	19
NT(나노기술)	36	11	29	8	44	11
ET(환경에너지)	46	22	29	34	41	18
ST(우주항공)	-	-	1	-	-	1
CT(문화기술)	-	-	-	-	-	-
기타	3	10	29	10	19	10
합 계	282	135	299	282	282	127

- '특허출원'은 총 335건으로 전년대비 12% 증가하였으며, 해외출원은 36건으로 전년대비 80% 증가
 - 실용화·사업화 중심 자산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우수특허 창출·확보 전략의 성공과 연구자 대상 밀착 컨설팅 지원(발명인터뷰, 랩컨설팅 등) 프로그램의 실효적 성과로 판단
 - '특허등록'은 총 127건으로 전년대비 21.8% 감소하였고, BT 24.1%, ET 47.0% 대폭 감소하였으나, 강원대학교 강점분야로서 타 분야 대비 상대적으로 감소 비율 부각
 - 특허청의 엄격한 심사기준 변화에 따라 강원대학교 뿐만아니라 국내·외 기관의 한국특허 확보 난관
- * 특허 거절률: '20년 17.3%, '21년 17.8%, '22년 18.6% → '23년 24.1%로 대폭 증가(특허청 통계)

□ 기술이전

(연도별 1~12월 기준, 단위: 천원)

정액기술료	2022년		2023년		2024년	
	건	계약금	건	계약금	건	계약금액
1천만원 미만	53	257,672	60	255,500	78	339,581
3천만원 미만	39	560,029	37	548,800	41	575,362
5천만원 미만	8	275,800	8	257,840	7	261,021
1억원 미만	3	170,000	7	410,000	3	185,000
1억원 이상	11	5,005,00	11	2,330,000	6	1,520,000
합 계	114	6,268,502	123	3,802,140	135	2,880,965

- '기술이전 계약 건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정액기술료 조건의 기술이전 계약금액은 감소 추세
 - 특히, 5천만원 이상 대형 계약 건은 자산의 질적 고도화 및 지속적 기술마케팅을 통해 개선 필요

참고문헌



7

참고문헌

4

- '25년 주요 연구개발 예산은 24.8조원으로 역대 최대규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24.06.26.)

5

- 2025년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사업 본격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25.02.11.)

6

-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으로 국민의 걱정은 덜고, 성장의 기회는 늘린다.
(교육부 보도자료, 2025.01.10.)

7

- 2025년 산업부 연구개발(R&D)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25.01.01.)

8

- “미래대응, 현장실용” 2025년도 농촌진흥청 예산안 편성
(농촌진흥청 보도자료, 2024.09.02.)

9~12

-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도입 본격 시동
(교육부 보도자료, 2023.03.08.)
-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위한 라이즈(RISE) 지원 전략(시안) 공청회 개최
(교육부 보도자료, 2024.11.13.)
- 학령인구 절벽 '현실화'...대학 재적학생 수 전년대비 7만 이상 감소
(한국대학신문, 2023.08.30.)

13~16

- 2024년 산학협력단 주요 지표 검토보고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2025.03.07.)

발행처 :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발행인 : 장철성(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장)

편집인 : 산학협력단 산학전략팀, 춘천권역 지학협력센터

Tel 033.250.8283 **E-mail** kim0517@kangwon.ac.kr

2434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태백관 2~4층